

관세청 “내년 예산안, 마약차단·인공지능(AI) 혁신에 집중… 현장맞춤형 연구개발(R&D)도”

- 전년 대비 385억원 증액된 7,284억원으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 원(5.6%) 증액된 7,284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8월 31일(월) 밝혔다.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4,076억 원, 주요 사업비 2,841억 원, 기본 경비 367억 원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 추진 과제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의 구축,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AI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시했다.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 213억 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67건, 1,007kg의 마약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적발로는 역대 최대이다. 관세청은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 T1과 T2에 있는 개별 관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화물을 2명이 동시 관독하는 체제를 갖춘 '엑스레이(X-ray) 복수 관독통합센터'를 설치

(52억 원)한다. 또한 3D 엑스레이(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과학검색 장비를 추가로 확보(46억 원)하고,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분석 장비도 확충(21억 원)한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94억 원)하여, 화물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검사자가 마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마약 전용 검사실도 마련한다.

[관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65억 원]

관세청은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공지능 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관세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관세행정 대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새로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물품별 공급망의 위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불법물품 인공지능(AI) 선별 모델'을 고도화(18억 원)한다. 수출입가격 왜곡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 등을 인공지능(AI)으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26억 원)한다.

또한 법무부·식약처 등이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14억 원)을 도입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에 민간인증·간편납부·인공지능(AI) 상담 등 국민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7억 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입 관계기관 간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범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장맞춤형 연구개발(R&D) 49억 원]

관세청은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는 관세국경 범죄에 시스템·인력 확충 등 기존 대응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현장의 담당자(수요자)가 혁신적 기술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검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한다.

수십 년간 축적된 컨테이너 밀수적발 사례(43만건)를 AI가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밀수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12억 원)하고, 엑스레이(X-ray) 관독 데이터를 표준화(9억 원)하여 수입물품 검사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포장지 개봉없이 바늘 삽입 후 센서를 기반으로 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7억 원)하고, 현안이나 현장에서 시급한 기술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단기 연구개발(21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마약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정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나종태	(042-481-766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형권	(042-481-7661)
	정보데이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봉	(042-481-7760)
	정보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현웅	(042-481-7766)